

“전국서 ‘의대 열풍’ 불더니 고3 이과생 비율 3년만에 감소”

내년도 인문·자연 구성비 분석
탐구영역 과탐 44.9%, 2.3%p↓
사탐 응시 55.1%로 2.3%p 늘어
‘수학·과학 학습부담’ 가장 큰 원인

〈2025학년도 고3 인문, 자연 구성비(3월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 /자료=종로학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문	385,829	56.2%	327,972	54.7%	321,994	52.8%	350,492	55.1%
자연	300,543	43.8%	271,576	45.3%	288,229	47.2%	285,536	44.9%
계	686,372	100.0%	599,548	100.0%	610,223	100.0%	636,028	100.0%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과생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돼 온 가운데, 지난달 치러진 전국연합 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에서는 이과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따라 수능에서는 이과 ‘N수생’이 많이 가세할 것으로 보여 고3 이과생은 지난 3월 학력고사와 본 수능 사이 점수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종로학원이 지난 3월 치러진 서울시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2025학년도 고3 인문·자연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탐구 영역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44.9%로 집계됐다. 1년 전에는 이 비율이 47.2%로 2.3%p 하락했다. 반대로 사회 탐구를 응시한 학생은 55.1%로 지난해(52.8%)보다 2.3%p 늘었다. 통상 사탐을 응시하는 학생은 문과로, 과탐을 응시한 학생은 이과생으로 추정한다.

이과생 비율이 축소된 것은 국어와 수학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치르는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이다. 3월 학력평가 기준, 이과생 비율은 ▲2022학년도 43.8% ▲

2023학년도 45.3% ▲2024학년도 47.2%로 계속해서 늘었다. 최근 의대 열풍에 더해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어영역에서도 이과 학생들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이 지난해 37.6%에서 지난 3월 37.4%로 축소됐다. ‘언어와 매체’는 지난해 수능 선택 학생 중 62.6%가 과탐을 선택, 사탐 선택 학생은 32.8%로 이과 학생이 주로 선택한다. 반면 문과 학생들의 선택 비율이 높은 ‘화법과 작문’은 지난해 62.4%에서 62.6%로 증가했다.

수학 영역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비중이 43.4%에서 43.8%로 확대됐는데, 최근 문과생들도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는 점을 인식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종로학원 측 설명이다.

이과 학생들만 주로 응시하는 ‘기하’ 과목 선택 비중은 2.7%에서 2.3%로 줄었다.

이과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과 비율이 줄어든 것은 수학·과학에 대한 학습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 수능 이과 비율은 지난달 학력평가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는 수능 주관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6·9월 모의평가와 달리 재수생 등 고교 졸업생은 참여하지 않는데,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이과 ‘N수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고3 이과생 비율 줄어들어 의대 내신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5월 의대 모집정원 확정표에 따라 이과 반수생 가세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의대 뿐만 아니라 이공계 진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반수가 늘어날 수 있어 고3 이과생은 3월 점수와는 (문과에 비해) 본 수능 점수 차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모습.

/서울시

서울시, 교통시설 등 2104곳 안전점검

전문가·공무원 등 190명 참여

서울시는 이달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내 시설물 210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간 시는 교통시설(185곳), 건축시설(592곳), 어린이 이용시설(332곳), 복지시설(203곳), 다중이용시설(72곳)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건축·전기·소방 포함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 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설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점검도 병행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신속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 금지·철거·위험 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 조치 후 시설 보완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안전 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safewatch.safemap.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원당역세권 구도심 활성화 나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고양시가 대표적인 노후·쇠퇴지역인 원당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원당 구도심은 1961년 원당면으로 고양군청이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하지만 1996년 일산과 화정 개발, 2004년 고양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인근 지역 대형마트 입지로 원당지역 상권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후 원당 재정비촉진지구가 2007년 지정됐으나, 원당상업구역의 경우 주민의 반대로 2015년 정비구역에서 결국 해제되고 말았다. 하지만 올해 고양은평신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면 원당

구도심 지역은 기존 3호선과 신설되는 고양은평선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고양형사 혁신지구 건립과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원당버스차고지 조성사업,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각종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을 모색 중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원당역사 주변 공공영개발 ▲원당상업복합구역 정비·활성화 ▲현 청사 주변 정비·활성화 ▲원당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 요청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중랑구 동진학교 2027 개교 예정
성동구 성진학교 2028년 3월 개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진학 수요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일 ‘제44회 장애인 날’을 맞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 9월 중랑구 동진학교가 개교 예정이며, 성동구에는 성진학교가 오는 2028년 3월 문을 연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특수교육 진학 수요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진학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초등학



/서울시교육청

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 특수학급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학 희망교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확대한 진학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진학수요에 맞춰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교육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

정보 SNS 채널을 개발해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고, 특수교육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22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해 교사 교육과정 및 수업나눔 전문가 연수 등 맞춤형 연수도 이어간다.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성에 맞는 자격증 취득 지원과 현장 중심 진로·직업 체험 교육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지원 및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가칭)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존의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존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을 넘어 공존을 향한 공감의 특수교육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이란과 충돌 후 지지율 회복”...추락 하던 네타냐후 기자회견
▲미, 이스라엘 군부대 첫 제재 시사...서안지구 인권유린 혐의

▲미, 중국 겨냥 ‘중거리 미사일’ 동아시아 배치 보류할 전망
▲필리핀, “전 정부·中 남중국해 합의 국익 반하는 것...구속력 없다”



▲이어지는 엔저...일본 내년 GDP 인도에 추월당할 듯
▲미 하원, 608억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안통과...러 강력 반발